



성공회 영등포 성당

St. Christopher's Anglican Church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 ☎ 02-2671-6290, 2633-8877(팩스) © stchris@anglican.kr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2002년 5월 29일 승천대축일-세계성공회주일 · 다해 · 백색

제57-21호

승천 - 생명의 상승과 확장

(루가 24:44~53)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승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사건입니다. 그러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사람에게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오해하면, 그리스도교 신앙과 행동이 엇나갈뿐더러,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롱받기에 십상입니다.

승천은 한 처음 천지창조로 펼쳐진 하나님의 활동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면서 일어난 신앙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면,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승천은 인간의 잘못으로 부서져 내려앉은 창조세계가 새롭게 회복되어 상승하고 확장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 한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우리 모든 인간을 포함한 창조세계 전체에 일어났으며 계속 일어납니다.

하느님께서 ‘참 좋다’고 하신 창조세계가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온갖 예언자들을 당신의 손길로 쓰시며 갈라진 하늘과 땅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세계를 끌어안아 올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간세계의 침울한 운명이 드러났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생명 세계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부활로 새로운 삶이 펼쳐졌으니 이를 즐기면 그만일까요?

하느님께서 아름다운 창조세계의 주인공이 우리 인간이기를 바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며 기대는 일만으로 우리는 참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명

령하는 주인과 굽신거리는 종의 관계는 참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 몸으로 살 때라야 우리는 동등한 제자, 하느님과 벗 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손쉽게 기대지 말고 우리가 함께 모여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인은 고난과 죽음의 현장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 도망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분부대로 그 현장에서 ‘서로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되풀이하여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입니다. 제자인 우리 또한 함께 서로 머물러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야 합니다. 이는 침몰하는 배 안에 ‘가만있으라’는 거짓된 약속이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상처 입은 삶을 서로 초대하며 보살피는 일에, 서로 생명을 되살려 회복하고 확장하는 일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오월에 담긴 상처와 희생의 기억이기도 합니다.

부활과 승천으로 하느님의 사명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완성해야 할 사명이 남았습니다. 승천이라는 작별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채워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두커니 하늘만 쳐다보지 않고, 우리 주위에서 사람을 모아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길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오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리어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낙현 신부)

서울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
관 할 사 제 주낙현 요셉 신부
보좌 사 제 구균하 요나로렌스 신부
신자 회 장 김종희 요셉
사 제 회 장 차기성 안드레

교회위원 구정에 변금숙 서남철 신한중 이성식 이평환 조진성 추경민 한재업
원로위원 서세룡 유호에 송갑호 추형두 이충웅 이용해 박해웅 윤용환 이종한
보혈조력 박해웅 신한중 윤영옥 윤용환 이용해 이종한 차기성
성가대 지휘 김민숙 선창 한재업 반주 고아랑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경희 이난희 이광자마리아

■ 전례와 사목

1. 부활절기 전례 안내

부활절기 전례곡은 B곡 시편곡조는 앵글리칸 찬트(성가 49장)입니다. 부활절기 주일 전례에서는 니케아신경을 외웁니다(기도서 249쪽, 성가 76장).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성가책을 지참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활절기 평일 아침 성찬례 안내

평일 아침 성찬례를 오전 6시 30분 화·수·목·금에 성전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로 신앙 생활에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3. 성령강림대축일(6월 5일) 빨간 드레스 코드

다음 주일(6월 5일)은 성령강림대축일이며, 부활절기의 완성일입니다. 성령의 내리심을 기억하고, 부활과 성령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일을 축하하며, 교우 모두 빨간색 장식과 옷차림으로 함께 하여 주십시오.

4. 전국동시지방선거일(법정공휴일)

이번 수요일(6월 1일)은 임시공휴일로 아침 성찬례가 없습니다.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

1. 6월 교회위원회

다음 주일(6월 5일) 오후 12시 45분 성전 교회위원회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2. 세례성사와 신자영접

6월 12일(성삼위일체주일) 오전 11시 성찬례 중 성전 세례성사: 백지웅(후견인 주요한), 강현모(후견인 송종익)
신자영접: 심종은, 최유정(후견인 한재업, 박계자)

■ 활동단체 소식

◆ 활동 단체 모임

안드레회 - 오늘 오전 11시 성찬례 후, 베드로회방

◆ 성가대 - 남성 성가대원 모집

남성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돕는 봉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십시오. (문의: 성가대장 조혜순 아가타 010-2318-3381)

◆ 어머니회 물품 판매

- 다시마 1kg(1박스) 1만7천원 - 참기름 1병 1만원

- 미역 1kg(1박스) 2만5천원 - 들기름 1병 1만1천원
- 고사리 주문 1봉 2만6천원 - 옛기름 600g 4천원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종한(1일) 장기환(2일) 신명식 이충웅(3일) 공현정(4일)

◆ 교우 별세 소식

오현희 카타리나(이한준 미카엘) 교우의 부친 오진용 스테파노 교우께서 지난 5월 24일에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의 안식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 액수는 인쇄 종이 주보에만 실리며, 전자문서(이메일, 홈페이지) 주보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 십일조 · 월정헌금

고아랑 구정에 김영혜 김종희 변진선 송미경 유혜상 유혜경 유호애 윤선구 이난희 이자영

■ 주정헌금

김경아 김삼홍 박남미 박성준 서정민 선병순 송미경 신명식 신희숙 유권열 윤영옥 윤옥랑 이정희 이광자 이성빈 이은미 이정숙 이종한 전병도 정명옥 정상임 정은숙 주애다 주창순 한부순

■ 감사헌금

김문자(자녀임신) 박건치(생활) 박계자(범사)
변진선(생활) 신정자(건강) 윤영옥(평일미사)
이광자(생활) 이정숙(생일) 정희진(범사)
주낙현(서품기념) 무명1

■ 기타헌금(미사 예물 · 주일학교 · 학생회 등)

목적 헌금

■ 나눔의집헌금 이순경
■ 예수사랑헌금 김난희
■ 온라인선교헌금 이순경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봉헌 안내

■ 십일조(월정헌금) 일반·감사 등 봉헌
기업은행 083-082654-04-015

세계 성공회 주일 Anglican Communion Sunday

성공회는 <세계 성공회 주일>(Anglican Communion Sunday)을 제정하여 지킵니다. 성공회는 전 세계 165개국에 41개의 독립 관구 성공회가 모여 단일한 교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억 명의 신자가 있으며, 그리스도교 가운데 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 정교회 다음으로 큰 교단입니다.



<세계 성공회 주일>은 지난 2016년 세계성공회협의회(Anglican Consultative Council, ACC) 16차 회의에서 결정하여, 캔터베리의 성 어거스틴 축일(5월 26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로 정합니다. 어거스틴 성인의 선교 노력과 성공회의 연원을 깊이 새기자는 뜻입니다. 올해는 승천 대축일과 함께 지킵니다.

캔터베리의 성 어거스틴은 첫번째 캔터베리 대주교입니다. 5세기 말, 교회가 분열되기 전, 로마의 그레고리 교종이 어거스틴 성인을 브리튼 섬(지금의 영국)에 파견하였습니다. 당시 브리튼 섬에는 켈틱 교회와 북아프리카에서 기원한 교회들이 이미 있었는데, 성인은 이들과 협력하여 브리튼 섬들의 그리스도교가 서방교회와 연결하여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거스틴 성인은 얼마 후 초대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성공회는 그리스도교 역사와 전통 안에서 초대 교회의 정신과 모습을 신학과 전례에 가장 잘 담고 있는 교단이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 성공회 주일>에 우리의 선교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세계 성공회 형제자매 교회들의 일치와 연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성공회는 세계 성공회 41개 독립 관구의 일원으로서, 캔터베리 대주교를 중심으로 모든 세계 성공회의 교회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 땅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롭게 떨어진 개별 교회가 아닙니다. 세계 성공회 안에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커다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공회 전통과 신앙을 되새겨서, 신뢰를 잃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 새로운 희망을 일구어내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 기도해 주세요 †

▣ 교회를 위하여

- ◆ 영등포 성당의 신앙 회복, 전례 회복, 교회 회복을 이루도록
- ◆ 지역 사회와 협력하도록
- ◆ 새교우를 환대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 ◆ 코로나 상황을 넘어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하여
- ◆ 사회와 정치 안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위하여
- ◆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 가정을 위하여

- ◆ 주간 평일에도 성무일도를 바치는 가정이 되도록
- ◆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위하여

▣ 어려운 교우와 환자를 위하여

한부순 손정자 박길자 정상운 권영달 김경옥 이명길 윤길자
이현숙 채옥순 최종주 신희숙 신정자 유호애 김복근 민병하

▣ 임 신 정셋별 ▣ 군복무 양승환 김예찬 ▣ 유 학 이재성(독일)

▣ 장기출장

박지혁 김슬기 윤상기 한지원(미국) 서한얼(캐나다)

감사성찬례 1형식 (기도서 244-272쪽)

✧ 기도서 ♪ 성가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성공회영등포성당

개회예식

입당성가(선다)	♪ 233장	다함께
정심기도	✧ 244	집전자
죄의고백	✧ 293	다함께
영광송 (B곡)	✧ 246 / ♪ 75	다함께

말씀의 전례

본기도 집전자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어 영광을 받으셨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는 우리가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있으나 하늘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 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 독서(읽는다) 사도 1:1-11 말은이
시편 시편 47편 다함께



- 1 너희 만백성아, 손뼉을 쳐라,
○ 기쁜 소리 드높여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2 주님은 지존하시고 지엄하시다.
○ 온 누리의 크신 임금이시다.
3 우리 앞에 만민을 무릎 꿇리시고
○ 못 민족을 우리 발아래두셨다.
4 당신의 사랑, 야곱의 자랑거리
○ 이 땅을 우리에게 손수 이끌어주셨다.
5 환호 소리 높은 중에 하느님 오르신다.
○ 나팔 소리 나는 중에 주님 올라가신다.
6 찬미하여라 하느님을, 거룩한 시로 찬미하여라.
○ 찬양하여라 우리 왕을, 거룩한 시로 찬양하여라.
◎ 영광이 | 성부와 | ○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아|멘

2 독서(읽는다)	에페 1:15-23	말은이
복음환호송(A곡)	✧ 291 / ♪ 55	말은이
복음서(선다)	루가 24:44-53	말은이
설교(읽는다)		말은이
니케아신경(선다)	✧ 249	다함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251 말은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선다)	✧ 293	다함께
봉헌성가	♪ 342장/모니카회	다함께
예물기도	✧ 293	말은이
성찬기도 (1양식)	✧ 257	
거룩하시다(B곡)	✧ 257 / ♪ 77	다함께
기념환호송 (1양식)	✧ 259 / ♪ 62	다함께
마침영광송	✧ 259 / ♪ 64	다함께
주의기도	✧ 269 / ♪ 65	다함께
성체나눔	✧ 269	다함께
하느님의 어린양(B곡)	✧ 270 / ♪ 78	다함께
영성체(읽는다)	✧ 270	
영성체 성가		성가대
영성체 후 기도(선다)		다함께

하느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나게 하시어 우리의 인성을 높이시고, 천상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셨나이다. 비오니, 영적인 축복으로 양육 받은 우리가 언제나 마음을 천상에 두고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광고(읽는다) 말은이

파송예식

축복기도(선다)	✧ 294	집전자
파송	✧ 272	말은이
파송성가	♪ 234장	다함께

	이번 주일 성찬례 (5월 29일)		다음 주일 성찬례 (6월 5일)	
	9시	11시	9시	11시
집 전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설 교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1독서	우영현	전병도	우영현	이성빈
2독서	서정민	김경아	서정민	김예중
대 도	신명식	신환중	신명식	추경민
십자가	윤용환	차기성	박해웅	이용해
다음 주일 6월 5일	전례독서 사도 2:1-21 시편 104 로마8:14-17 요한 14:8-17 성 가 입당 235장 봉헌 303장 영성체 성가대 파송 308장			
교 회 청 소	6월 4일 안드레회 1조 신환중 이종한 차기영 이성식 한재업		6월 11일 안드레회 2조 서남철 윤선구 박영수 유권열 유인환	